

지역 소식통

정읍시자봉센터 운영재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정읍시자봉센터(이사장 은성수)가 18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정읍시자봉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중단했으나, 정부의 방역 지침이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을 재개한다.

센터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자원봉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2020년 전문자원봉사자 교육'을 25일 개강한다.

교육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명부 작성,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자원봉사자 교육은 자원봉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귀반사요법, 제과제빵, 네일아트, 정리수납, 발 마사지 등 6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축산환경개선 TF팀

축산냄새 잡기 활동재개

고창군이 악취에 따른 주민불편과 축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축산환경개선 TF팀(축산과 생태환경과, 축협,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단체)'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 2월 현장점검을 마치고 나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었다.

축산환경개선 TF팀은 관내 6개 양돈 농가를 방문해 농장별 악취저감 컨설팅과 환경법 관련 사항 등을 점검했다. 또 농가 외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컨설팅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축사내부 슬러지제거, 청소여부, 악취저감수 방법방법 개선 등 이행명령 이행 사항 등도 꼼꼼히 살폈다.

이밖에 고창군은 축산악취 제거시스템사업을 지난해 12개소에 이어 올해 6개소를 추가 지원해 축산냄새를 실시간으로 측정·모니터링해 상시 조치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집행”

정읍시, 18일부터 5부제 현장 접수·온라인 신청도 가능 무기명 선불카드를 수령 즉시 개인 정보 카드사 등록해야

정읍시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이어 지자체 선불카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불카드 수령을 희망하는 시민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에 따라 5부제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총 315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이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민 홍보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난 13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긴급재난지원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교육을 실시했다.

또, 기간제 근무자 57명과 자원봉사자 8명을 파견해 현장 접수와 민원 응대 업무를 지원하는 등 효율적으로 긴

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사업 특성상 일시적으로 선불카드 발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 발 빠른 대응으로 정읍시 선불카드를 미리 확보해 18일 현장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했다. 한편 정읍시 선불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라 지급되기 때문에 무기명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자신의 정보를 카드사에 등록해야 한다. 비씨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북은행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면 분실·도난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잔액을 마저 사용할 수 있다.

유진섭 시장은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와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이어 지자체 선불카드 신청을 접수한다.



고창군이 매주 금요일 오전 고창군농산물유통센터에서 실시하는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군, 수산물 드라이브스루도 '완판'

5차례 진행된 농축수산물 판매전 인기... 총 매출액 4000만원

새콤달콤 딸기 등 농산물도, 쫄깃한 바지락 등 수산물도 모두 '완판'이다. 매번 반나절도 안 돼 동났다 달려온 차량만 500여대에 이른다. 판매액은 하루 3000만원 이상이다. 파는 사람도 웃고, 사는 사람도 활짝 웃었다.

고창군이 매주 금요일 오전 고창군농산물유통센터에서 실시하는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펼쳐진 '수산물 장터는 비가 오는 날에도 준비된 물품이 3시간 만에 모두 팔렸다. 동축조개와 바지락을 비롯 풍천장어, 지주식 김 등 6개 품목 900세트가 모두 판매됐다. 당일

매출금액은 2000여만원에 달했다. 고창군 그간 5차례로 진행된 농축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통해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등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총 판매액은 4000만원이다.

고창군 이영운 농어촌식품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위축된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전'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여, 온라인 소싱을 기획전 등 다양한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상설시장 '참뽕간장새우' · '오뎅떡갈비' 특가전

우체국쇼핑 물에 입점 · 판매

부안우체국(국장 신성호)은 6월 15일 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축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부안상설시장과 손잡고 부안군상설시장 및 집 명물인 '참뽕간장새우'와 '오뎅떡갈비'를 우체국쇼핑물에 입점 · 판매로 3000원 할인 특가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가전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부안소상공인업체를 돕고자 1천여만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한정수량

으로 진행한다. 특가전 상품 가격은 평소 가격보다 25~30%할인된 가격으로 참뽕간장새우(시진)는 1만900원(2,200개 한정), 오뎅떡갈비는 1만2,000원(1,400개 한정)으로 우체국쇼핑물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배송비는 무료이다.

신성호 우체국장은 "부안군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해 우체국쇼핑 입점을 적극 추진하고 우체국쇼핑물에 부안군 우수상품 기획전도 개설하는 등 지역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헤어임' 가족교실 참여자 모집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헤어임' 가족 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헤어임' 가족 교실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치매 환자 가족과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를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과 이웃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주 1회(수요일) 진행된다. 센터는 가족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며 '헤어임 교실'

에 참여하는 동안 동반 치매 환자 돌봄서비스도 함께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제별로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정신 행동 증상 및 치매의 위험요인 ▲치매 진단 및 치료와 관리 ▲마음 이해하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 ▲의사소통 방법 학습 및 응용 ▲남아있는 능력 찾기 ▲가족의 자기 돌보기 순으로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고령자 면허반납 '팔 걷어'

교통사고 급증... 자진 반납 맨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원

정읍시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지난해 전북도 내 최초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에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현대 사회에서 고령자의 인지기력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운전면허 반납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운전자다.

면허반납 희망자는 정읍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 취소 신청을 하고 면허증을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급되는 교통카드는 전국(일부 지역 제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버스, 지하철, 택시는 물론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4월 반납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2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지급받았다.

시는 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를 통한 노인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시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로 고령 운전자가 줄어 어르신은 물론 정읍 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